



이수길/국토개발기술사
(주)경일기술공사
기술상무

향토수목의 대량생산 및 판매전략

1. 머릿말

하나의 업종이 생겨서 발전해 나가고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더구나 조경분야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창조했다기 보다는 기존의 건축, 토목 혹은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로부터 영역의 일부를 할애받아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조경분야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영역을 할애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관련분야와의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 20여 년 동안에 조경이 각 분야에서 특수성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소

재의 개발과 유통구조개선, 가격 적정화면에서는 과거의 구태의 연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수목은 타건설용 자재와는 달리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생물재료라는 점이고, 둘째 생산과정이 길어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며, 셋째 소재 자체가 환경에 적응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장래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등이며 재료로서의 특이성은 스스로 생명현상을 이어가는 것으로서 ①생물로서의 환경요구 ②시간적 변화 ③역사성 ④생물로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경수목의 선택은 과거에는 관상을 위주한 단순한 환경의 미화에 역점을 두었으나 오늘날에는 공해의 방지,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조, 기능중심과 실용위주로 선택되고 있어 사용수종의 폭은 다양해지고 또한 앞으로 더욱 다양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지금까지는 우리의 자연경관에 조화되고 적응될 수 있는 향토수종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향토수목은 타지방이나 외국에서 도입된 수종이 아니며 현존의 생육지에서 오랜 기간동안 자연도태의 과정을 거쳐서 그 지방에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나무이다. 그러므로 향토수종은 그 지방의 자연환경에 도입수종보다 적응이 잘 되며 지방의 경관과도 조화를 잘 이룬다. 이외에도 향토수종은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이나 생활과 융합되어 상징적인 의미도 갖게 된다. 향교, 활터, 서원 및 정자 옆에 심거나 나무 그 자체가 정자구실을 하며 마을의 행사, 모임, 놀이로 이용되어온 정자목, 역사적 사실이나 전설을 간직한 명목(名木) 등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나무들이다.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응되는

향토수종을 개발하여 조경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으나 새로운 수종을 개발하여 생산하려 할 때 소비가 안 될 경우의 위험 부담, 새로운 수종을 조경설계에 사용하려 할 때의 소재구입시 어려움과 가격적용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생산기피와 설계기피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종래 조원용 수종사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연을 동경하는 도시인들에게 조경수목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자연, 인공 구조물과의 조화를 이룩하여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아가 국토를 쾌적하고 조화있게 가꾸기 위해서는 조경분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수요에 맞는 적정량의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가격의 적정화를 기하여 생산자 및 실수요자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경수목 선정시 고려할 사항

조경수목은 조경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을 토대로 하고있는 인간생활환경 주변의 정화와 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

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미적, 기능적, 심미적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조경수목(Landscape Woody Plants)이라 한다.

조경공사의 주요재료인 수목은 환경이라는 틀레속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각기 알맞은 환경에서만 생존이 허용된다. 따라서 기온, 광선, 수분, 토양양분 및 반응, 유기물, 표층토의 깊이, 토양의 종류,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공해 등 환경요인에 적응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조경수목에 대한 생태적 특성과 환경요인, 오묘한 자연의 섭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그 가치를 표현에 직결하여 조경에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경계획을 위한 수종의 선정은 수목의 외부 형태적인 기능으로서의 수형, 생활형이나 색채, 계절성 등의 경관적인 특성이 조경의 자리에 있어서의 공간적 시간적인 미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수목 본래의 기능으로서의 번식력이나 이식력 등의 강도, 생리, 생태적인 환경적응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조경수목이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으로서는

- ① 실용적 가치와 형태미가 뛰어나 관상가치가 높은 것
- ② 식재지의 불리한 환경이나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과 적응성

이 강한 것

③ 이식이 용이하며 이식후 활착이 잘 되는 것

④ 번식재배가 잘 되고 관리가 용이한 것

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조경수목의 선정은 수형, 성상, 꽃, 열매 등의 형태적 인자와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기후적 요인, 토양적 요인, 생물환경요인 등의 생태적 인자, 수목의 번식, 이식, 전정 등의 재배관리인자 및 수목의 기능적 인자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형태적 인자〉

성상, 수형, 잎, 꽃, 열매, 가지, 줄기의 형태 및 밀생정도, 색채, 질감, 향기 등에 관한 인자로서 주로 관상적 가치와 관련된 인자

〈생태적 인자〉

기온, 수분, 일조 등의 기후적 인자, 토성, 유효토심, 토양양분, 토양구분 등 토양인자, 수종내외 수종간의 경쟁 및 공존여부 등의 식물사회적 인자

〈재배관리 인자〉

녹음, 방풍, 방음, 차폐, 경계, 피복 등의 식재도 얻을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된 인자 이상과 같은 수목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관련 인자중 수목의 활착 및 성장에 필수적으로 직결되는 필수인자로는 ①내한성 ②내공해성 ③내염성 ④내습, 내건성 ⑤이식시기 및 이식력 등이 있고 부차적 인자로

우리나라 조경수목의 생산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산림청, 조달청, 한국조경수협회 등과 발주처별로 부분적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으나...

는 ①내음성 ②토양양분 ③생장 속도 및 맹아력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인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①수목 구득의 난이도 ②수종별, 규격별 가격차이(참고가격과 유통가격) ③수종별 하자율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3. 조경수 생산유통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우리나라 조경수목의 생산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산림청, 조달청, 한국조경수협회 등과 발주처별로 부분적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으나 통계조사치의 정확성, 신뢰도가 낮고 또한 규격별로 조사되어 있지 않고 수목의 수령별, 경급별로 조사되어 있어 실용성 활용가치가 적다.

앞으로는 생산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규격별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조경수목을 생산하는 생

산업체의 수와 수종별 보유량은 아무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경수목 생산자들이 인기가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특정 수종만을 집중 생산하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경수목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네가지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데 첫째 유형은 생산자 → 실수요자의 경로이고, 둘째 유형은 생산자 → 생산지 조달 중간상인 → 실수요자, 셋째는 생산자 → 생산지 조달 중간 상인 → 소비자 중간상인 → 실수요자, 마지막 유형은 생산자 → 소비자 중간상인 → 실수요자의 경로이다. 조경수목의 모든 유통경로가 이러한 기본적 유형대로만 유통되는 것은 아니고 실수요자와 중간상인 사이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중간단계의 하청이 발생하는 변형이 있기도 하다.

조경수목의 수종별 생산지 현황과 수요자를 중간상인 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

을 통해서 수목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간상인들은 극소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본이 영세하기 때문에 수목을 직접 확보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기 보다는 수요자에게서 선급을 받아 수목을 구입 알선하는 중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조경수목의 유통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역시 전혀 밝혀진 것이 없고 다만 조경공사의 시공현황에 대한 부분적인 통계자료와 조경수목의 활용실태와 적정 수종 선정에 관한 연구, 조경수목 유통의 문제점과 구조개선 방향 등이 있으나 거의가 부분적이며 표본 조사에 의한 유형별 분석 등에 국한되어 있고 전국적인 수종별 총 수요량의 자료는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나 이들 자료를 이용해 유통경향(사용)을 분석한 결과 사용빈도가 많은 조경용 수목을 성상별로 열거해보면

〈상록교목〉

향나무, 잣나무, 독일가문비, 섬잣나무,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 가이뜨까향나무, 서양측

백, 주목, 스트로브잣나무, 적송, 실편백, 동백나무, 곰솔, 편백, 반송, 둥근소나무, 아왜나무, 황금편백, 리기다소나무

〈낙엽교목〉

느티나무, 청단풍, 프라타나스(버즘나무), 목련, 은행나무, 꽃사과, 왕벚나무, 은단풍, 홍단풍, 당단풍, 배롱나무, 현사시, 회화나무, 자작나무, 메타세쿼이아, 자귀나무, 산수유, 모과나무, 목백합(썬나무), 칩엽수

〈상록교목〉

회양목, 영산홍, 둥근향, 옥향, 눈향나무, 둥근주목, 사철나무, 팡나무, 팡팡나무, 피라칸사스, 호랑가시나무, 돈나무, 치자나무, 밀감나무, 비파나무, 팔손이

〈낙엽교목〉

무궁화, 수수꽃다리(라일락), 개나리, 산철쭉, 쥐똥나무, 명자나무, 곱철쭉, 자산홍, 장미, 불두화, 진달래, 박태기나무 철쭉, 화살나무, 고광나무, 병꽃나무, 모란, 좁작살나무, 낙상홍

〈관경류 및 지피식물〉

잔디, 등나무, 덩굴장미, 실란, 맥문동, 담쟁이덩굴, 유카, 당종려, 머루나무, 쉼, 산죽, 오죽, 능소화, 다래, 으름나무, 조릿대, 종려, 마삭줄, 산딸기, 송악 등이 다.

나. 문제점

1) 생산

가) 무계획적 생산체계

조경수목의 생산실태에 관해서

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다 수요에 대한 정보도 간헐적으로 약간씩 정도로만 입수되기 때문에 상대수요의 예측이나 전망을 제대로 알 수 없어 계획성 있는 생산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 부업적인 경영형태

조경수목 생산을 주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조경수목 생산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여 조악한 경영이 되고 있다.

다) 생산수종의 집중화

새로운 수종의 개발보다는 인기가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이용하는 수종을 안전하게 택하여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수종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신규수종에 대한 수요가 없고 이것이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수종의 개발을 기피하게 하여 특정 수종만을 편중적으로 생산하게 만들었다.

2) 유통

가) 복잡한 유통구조

조경수목의 유통단계에서 중간상인의 개입이 많아지고 하청단계가 많아질수록 유통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중간비용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의 판매가격이 낮아지든지 아니면 실수요자의 구입가격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면 수목의 품질에 대한 책임도 애매해질 뿐더러 불성실한 중간상

인은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서 과다적재를 행하는 등으로 더욱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많다.

나) 전문 중간상인의 부족

중간상인들의 대부분은 수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거래에 쓸데없는 시간과 경비의 과다지출을 유발한다.

다) 덤핑판매의 성행

차지기간의 도래, 긴급한 자금의 소요, 타용도 및 사업으로의 전환, 관리소홀로 인한 불량목 처리 등의 사정으로 덤핑판매가 성행되고 있는데, 덤핑판매로 유통되는 조경수목들은 대체적으로 수목의 품질이 저질의 것이 많기 때문에 하자발생률도 높고 중간상인의 이익을 많게 해주는 악영향을 일으킨다.

4. 향토수목의 생산 및 활용

가. 분포

향토수종을 비롯하여 개발가치가 있는 수종이 많음에도 생산이 적거나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수종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향토수종으로서 산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수종은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참나무류, 주엽나무, 팽나무, 보리수, 대추나무, 박달나무, 왕버들, 밤나무, 감나무, 가중나

따라서 정부 중앙부서내에 조경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 조경수목의 장기적 수급동향을 예측하고 이에따라 생산을 조절하고 정보체계를 확립하여…

무, 배나무, 살구나무, 모과나무, 배롱나무, 느릅나무, 물푸레나무, 젓나무, 피나무, 측백나무, 모감주나무, 곶술, 매자나무 등이 있다.

보호수지에 수록된 향토수의 수량적 분포를 보면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왕버들, 회화나무, 향나무, 주엽나무, 참나무, 음나무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향토 수종임을 알 수 있다.

나. 개발현황

어떤 향토수목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가는 그 수목의 생산여부 생산량, 사용량 등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목의 생산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로 향토수목의 정확한 개발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다량구입 가능한 수종으로 수급이 원활한 수종은 은행나무, 잣나무, 회양목, 향나무, 쥐똥나무, 철쭉류, 목련류, 무궁화, 주목, 느티나무, 개나리, 명자나무, 진달래 수수꽃다리, 동백나무 등이

며, 구입이 어려운 향토수종으로는 층층나무, 왕벚나무, 회화나무, 자귀나무, 쪽동백, 복자기나무, 이팝나무, 뽕나무, 산딸나무, 팽나무, 마가목, 가시나무, 반송, 모감주나무, 산사나무, 눈향나무, 자작나무, 가중나무, 식나무, 돈나무, 물푸레나무, 서어나무, 감탕나무 등으로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 개발가치가 있는 수목

현재 생산이 거의되지 않고 있거나 소량 생산되고 있는 수종중 개발이 되어야 할 수종으로는 층층나무, 산딸나무, 느릅나무, 산사나무, 회화나무, 구상나무, 이팝나무, 자귀나무, 팽나무, 참나무류, 때죽나무, 모감주나무, 마가목, 노각나무, 피나무, 산수유, 서어나무, 복자기나무, 쉬나무 물푸레나무, 귀룽나무, 살구나무, 가시나무류, 고광나무, 말발도리, 조팝나무, 작살나무, 개쉬땅나무, 불두화, 치자나무, 보리수나무, 미선나무, 가중나무, 돈나무, 매자나무, 팽팡나무, 먼나무, 담팔수, 산딸기, 붉나무, 녹나무,

산단풍(좁은단풍), 고로쇠나무, 박달나무, 굴거리나무, 팔배나무, 생강나무, 괴불나무, 백리향, 붉은병꽃, 야광나무, 으름덩굴, 머루, 인동덩굴, 해당화, 광나무, 박쥐나무, 시닥나무, 산겨릅나무, 분꽃나무 등이 있다.

5. 제언

조경수목의 개발 및 생산, 유통구조, 규격표준화 및 가격적정화에 대한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가. 조경담당 중앙부서의 설치
현재 정부 중앙부서내에는 조경업무를 총괄하는 책임부서가 없다. 그러므로 조경수목의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정보체계의 확립이 미흡하고 유통구조정비, 규격표준화 및 가격적정화에 대한 종합적 조절기능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중앙부서내에 조경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 조경수목의 장기적 수급동향을 예측하고 이에따라 생산을 조절하고 정보체계를 확립하여 유

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시수종의 다양화, 규격의 표준화 및 가격적 정화에 대한 연구검토와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과 정비, 업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기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 하거나 현행 기구내에서 관련성이 가장 많은 과나 국에서 업무를 확장하여 수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조정영역의 확대, 인간생활의 질에 대한 기여도 및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도 절실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나. 기존 단체 활성화 및 산학협동 체계 확립

기존의 한국조경수협회, 임업협동조합 등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수목정보센터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거나 각 대학의 조경관련 부설연구소 혹은 조정학회에 장기계획수립을 의뢰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며, 일본과 같이 녹화센터나 식목협회와 같은 유사기구의 설립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 또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각 단체 및 관련인들의 분발이 요청된다.

다. 전문 중간상인의 양성 및 협동사무실 설치 유도

중간상인들의 대부분이 수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반면, 자본의 규모가 영세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드물고 상호간에 정보교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추세에 판단

이 빈약하여 실용도 문제와 거래상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의 지출을 유발하며 유통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중간상인의 양성을 통한 자질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합동사무실을 개설 영업할 수 있도록 유도, 체계화시키는 방안과 각종 자료의 전산화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라. 수목수요 예고제 실시

조경수목의 생산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수용자의 생산자간의 정보단절로 보여진다. 조경수목 생산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조경수목수요의 동향 및 수종별 물량예측은 생산자의 재배수종 및 생산물량 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조경수목의 수요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자에게 향토수종 등 신규 조경수목의 재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경수목의 대량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조경수목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 3~5년 전에 수종별 사용규격 및 예상수량을 생산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서 생산자의 재배수종 및 물량결정 도움을 주고 반면, 수요자는 소요 물량의 원활한 확보와 수종다양화를 추구하

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요·공급자 양측이 공통이익을 대변해 줄 뿐아니라 특별한 자금의 부담 없이도 시행가능한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조경수목 수요예고를 시행할 경우 조경수목 생산은 체계적 전파기능 및 조절 장치가 없으므로 예고수종중 특성의 수종이 과잉 생산될 우려가 제기되나 예고수종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생산물량의 과잉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의 영향력을 높이고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경수목 사용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의 합동예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수목사용 실적 공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생산자들은 기존의 협회나 임업협동조합들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는 수종을 선정, 상호연대 생산함으로써 스스로 물량을 조절, 권익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재배의 확대실시

특수수종에 대한 전문생산업자와의 계약재배실시로 수목의 체계적 생산 및 수급을 통하여 유통질서의 확립과 안정적 수급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계, 업계, 관계 등 조정인들의 부단한 공동노력과 생산자들의 자구노력이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